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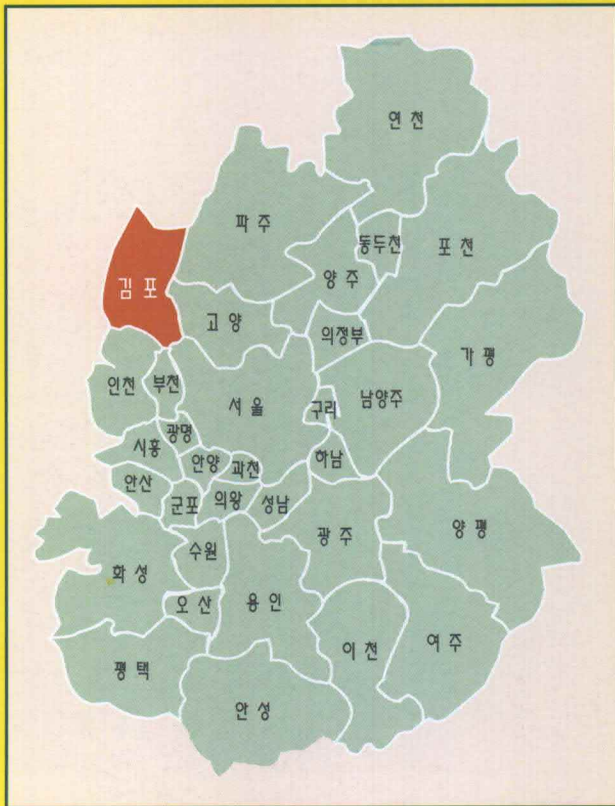
김포군

통진 두레 품물놀이

김포상두깻소리

통진 두레 농요

손돌공 진혼제



통진두레풍물놀이

1. 전승지

김포군 통진면 일대

2. 유래 및 해설

통진두레풍물놀이는 기름진 평야를 지니고 있는 김포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풍물놀이로서 표현 한 것이다. 1년농사 전반에 걸쳐 풍물놀이와 더불어 힘든 것을 잊게하고 협동하는 정신과 일의 능률을 보조하는 김포지역

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이다. 영농준비에서부터 탈곡하여 섬쌓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과 놀이를 함께하는 민속놀이로써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손을 불러 모으기를 시작으로 들로 나가서 논두렁밧기 → 못자리하기 → 범씨뿌리기 → 모내기 → 김매기 → 벼베기 → 탈곡하기 → 섬쌓기로 이어지는데 모든 과정이 끝나면 한바탕 신명나게 한마당 놀이로 구성되어 끝을 맺는 흥겨운 민속놀이로 김포읍 통진면 일원에서 전승되고 있다.



김포상두꾼소리

1. 전승지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마을

2. 유래 및 예설

김포상두꾼소리는 인간이 죽음을 당하여 장례를 치루는 과정중에서 장삿날밭인에서부터 회방아를 다져가며 봉분을 만들때까지 부르는 민요이다. 이 민요는 서민과 함께 숨쉬며 이어 내려온 미풍 양속의 하나로 민요의 내용은 인간의 죽음을 현세와 단절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승에 가서 보다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여 영적인 영원한 삶을 영위 하기를 기원하는 현세 지향적 부활의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불교의 윤회사상을 기본으로 삼고 농요의 바탕에는 해탈 의식을 반추하는 허무사상과 유교의 충효사상이 깃들어 있기도 하다. 농요의 가창형식은 선창 중답식으로 선소리꾼의 선창에 따라 상여꾼들이 후렴으로 이어 받는 영영민요조의 율격을 갖추었으며 다른 고장에서 부르지 않는 농요인 방아타령과 상사디어를 부르며 이중 방아타령은 선창자의 소리를 되받아 부르는, 형식이다. 전체의 흐름에서 볼때 일손을 모

으고 힘내기를 율동에 맞추어 주고 받는 노랫소리의 영원한 행복을 기원하는 애절함에 듣는 이를 도취시키며 오나무 다리를 건널때 이 농요의 절정을 이루어 심금을 울려 준다.

한편 이소리는 1989년 김포읍 사우리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다.



통진두레농요

1. 전승지

김포군 통진면 옹정리 마을

2. 유래 및 해설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농촌에서는 모심기와 논감을 뭉때 마을마다 두레가 구성되어 등걸이, 잠뱅이 차림에 우장, 호미등을 갖추고 두레농악의 한마당을 치룬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쓴 농상기를 앞세우고 길군악에 맞추어

일터로 나가 논두렁에서 한마당 놀이를 하고 농사일을 하게 되는데 힘든 농사일을 잊고자 선소리꾼의 선창에 따라 농부들이 후렴을 받아 넘기는 식으로 두레패 놀이가 이어진다.

그 간략한 줄거리는 논감을 뭉때 처음에는 시작과 준비를 알리는 길고 구성진 “사리”로 시작하여 힘든것을 잊을수 있는 흥겨운 방아타령을 거쳐 좀더 빨리 행동할 수 있는 중중모리인 사사디야오로 이어지게 된다. 마지막에는 일을 끝마치는 모음돌로 맺으며, '86년부터 통진면 옹정리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다.



손돌공 진혼제

1. 전승지

김포군 대곶면 신안리 마을

2. 유래 및 전설

예전 고려 고종때 몽고군의 침입으로 왕을 비롯한 신하들은 개경을 떠나 사공 손돌이의 배를 타고 예산강 벽란도를 거쳐 임진강과 한강하류를 지나 강화도를 가고 있었다.

왕의 일행이 현재의 대곶면 신안리와 강화도 광성진 사이의 해협이 협소하고 급류인 목에 닿게 되었는데 이 곳은 앞이 막힌 듯이 보이는 지형으로 처음 가는 사람은 뱃길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곳으로 널리 알려

진 지역이다. 천도하는 고종도 심기가 불편한 나머지 뱃길도 없는 곳을 향하여 노를 짓는 사공 손돌이를 의심하여 수차 뱃길을 바로잡도록 하명하였으나 손돌이 아뢰기를 “보기에는 앞이 막힌 듯하오나 좀더 나아가면 앞이 트이오니 폐하께서는 께념치 마옵소서”라고 아뢰었다.

고종은 마음이 초조하여 손돌이의 흉계를 의심하고 신하들에게 손돌을 죽이라 명하였다. 손돌은 죽음에 직면하고도 임금의 안전항해를 바라는 충성에서 바가지를 물에 띄우고 그것을 따라가면 뱃길이 트일 것을 아뢴 후 참수형을 받고 말았다.

왕의 일행은 손돌이의 바가지 안내대로 험한 협류를 무사히 빠져나와 목적지에 당도하였다. 위험지역을 무사히 빠져나온 왕은 늦게서야 잘못을 뉘우치고 손돌을 후히 장사지내주고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당도 세워주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 뱃길목을 지금도 손돌의 목을 벤 곳이라 하여 ‘손돌목’이라 부르며 공의 기일인 음력 10월 20일 쯤이면 손돌이의 원혼이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이때에 부는 거센 바람을 ‘손돌이바람’이 무렵의 추위를 ‘손돌이추위’라 전해오고 있다.

